

교회 목표

신약의 에베
전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로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3)

대한예수교 감리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지·단·수·요·예·벧·맥·시·지

우리의 가장 큰 실수

(사 59:1-8)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실수가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사소한 것일 때도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죄와 연관해서 자라나는 실수로서 죄를 정당한 벌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죄를 자신의 형으로 돌리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전제(前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불쌍같은 눈동자를 망각한 이들이다. 그리고 후자(後者)는 마귀의 계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진히 모르고 때문이며, 이들은 백반의 눈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자라난 교만의 길을 걷는 아이러슨 자들이다.

죄는 하나님의 교배를 끊게 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7-28). 그러나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교배를 단절시켰으며 창 3:23-24, 인간의 영혼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사 32:3-4). 어디 그 뿐이랴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거절하게 만드는 철벽의 막(막 1:35).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라고 말했다(사 59:1).

죄는 가정에도 영향을 준다.

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실수는 전염병처럼 그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파괴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사탄을 통해 수자와 미륵을 몰락시켰고(창 3:7,12). 그들의 자식들로 하여금 분별과 실단을 자라게 만들었다(창 4:8). 또한 다윗의 범죄가 자녀를 죽게 만들었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생각해보라(창 12:14).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는 언제나 죄를 품고 사는 자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니(골 1:7).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진정한 회개와 가난한 심령을 가진 부모들의 탄식하는 기도라 드러나는 것이다.

죄는 재산을 가져온다.

죄는 가정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재산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전 11:29-30). 죄는 때로는 부패와 장래의 재해를 맞이하는 길에 이르게 하며(창 12:5-6).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법칙에 따라 밭의 열매를 거두는 길에 한타(創 6:7).

죄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롬 6:23).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철칙의 법칙(히 9:27). 아무도 이 법칙을 피하거나 모면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만이 그 중죄와 같은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골 3:11).

살 길이 있다.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도 없다(사 59:3-4).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의 밭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시길 위하여(골 1:14). 주께서는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통성함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요 1:9). 우리가 진리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죄에 빠진 우리가 주께 가까이 오도록 말미암아 이들을 영에 대한 사실과 이러한 믿음의 담을 줄을 위한 우리의 수고로 하되(골 2:1)는 사실이다(고전 15:57-68).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가장 큰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달고요한과 그말씀 / 12월 6일 금요일

4. 만국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1. '여호와와 종'과 '공의' 의 뜻이 무엇인가(지나주 요약)

이삭이 야나탄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는 모든 아브라함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선포이다. 그래서 '이삭'은 '종'이라는 용어를 단어로 복수로 사용하면서, 이 용어는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를 가리키며, 또한 한 개인으로서의 종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까닭에,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나 역할 또는 그에 대한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며, '여호와와 종'이라는 선교적 초점으로 집중되고 있다(사 42:1,4). 그리고 '여호와와 종'은 '공의'와 '백성의 약속' 그리고 '이방의 빛'이라는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삭'이 가말하는 '공의'의 의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모든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2. 백성의 약속과 이방의 빛

"백성의 언약"(사 42:6)

이사가 42장 6절에서 '백성의 언약'이 된다는 말씀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언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씀은 열방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것이 정말인가? 그렇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는 선교적 사명에 의해 설명된다. 즉, 이스라엘이 선교적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이방 나라 역시 낙하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백성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에게 주어진 언약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이방의 종'은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종에서 믿는 자들로 구성된 그룹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백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들을 암시하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열방을 향한 축복'과 예레미야 33장 31절~34절에 묘사된 '제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사 11:9-10, 12:4).

"이방의 빛"(사 42:6)

이사가 42장 6절, 49장 6절에 나타난 '이방의 빛'에 대한 주제는 구약의 선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방의 빛'이라는 말은 여호와와 종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이며, 여호와와 종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다(알레사 이 미) '종'이라는 용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자도'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선교 이행을 설명(창 13:47), 일생의 후회까지 하(창 22:12) 할 일이다. '이방의 빛'에 빛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창 26:22-23). 그는 자신을 혁신자나 성경에 없는 것을 새롭게 소개하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사가 42장 6절과 49장 6절은 이사가 시대에 살았던 사람

들에게 향하신 명령일 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인 것이다. 그 증거는 '시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입증되며, 그가 예수를 팔아 준 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칭명(마 23:30-32).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8절에 나타나는 '말'까지 이르러 중언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삭'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가 4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권고임을 해석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이삭'의 선포를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 '말'까지 라는 표현은 이사가 49장 6절의 '말' 끝까지와 동일하며, 다음으로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사가 32장 15절과 44장 3절에 기록된 뒤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라,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는 말과 동일하다. 그리고 마 24장 제 26절로 '내 종들이 되리라'는 부르심은 이사가 41장 1절~43, 43장 8절~12절, 그리고 44장 8절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여호와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중언을 우상숭배자들에게 보내어 변론할 것을 촉구하신다는 것인데, 우상의 중언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사 44:3, 18~20), 생명이 없으며 구원의 능력이 없는 헛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사 44:1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중언으로 보내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들을 자신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사 43:10,12).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중언의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 역시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인 우상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사 42:18-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이방의 빛'을 삼아 '말'까지서 보내고 하셨습니다(사 49:6).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가 49장 22절~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와 종은 여전히 자갈도 일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그의 언약은 완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러나 마침내 그의 언약이 완성이 되고 성취될 것을 깨닫게 된다. 진실로 여호와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구원하시오 구속하시오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게 할 '여호와와 종'을 보내시라,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라. 그때에는 열방과 열방에게도 영광을 땅에 대고 내 밭의 터를 줄을 갈 것이라(말씀참사 49:23). 창세기 13장 14절에 간접적으로 언급된 믿지 않는 자들 전체를 나타내는 흠을 먹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결론

'이삭'이 신자라는 특별한 42장과 49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만 하는 사실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백으로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대하지 않고 반대로 불신자들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백성'이라는 말은 모든 이방인, 열방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한 '언약' 또는 예언자를 통한 '제 언약'에 함께 동참되어 있는 것이다. 축복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든 열방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와 종'에게 이 사람이 주어졌으며, 이것이 다시 바울의 선교의 이유이며(골 1:4), 이 사역은 단지 메시시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이방의 빛'의 범위는 '세상 땅끝까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As Christmas approaches, we can recall the sermons we've listened to about the shepherds, the inn at Bethlehem, the wise men, the call of the angels, and even Isaiah's messianic prophecies. Today's Bible message concerns Paul's words to the church at Galatia regarding Christ's birth coming at the perfect time. Indeed, Jesus came into this world at the exact moment in history, the precise occasion, the correct instant! We often forget that God's sovereignty in all things is right on time. His timing is always completely and absolutely flawless. Let's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God always being right when it comes to time.

Without a doubt, people are generally impatient regarding time. When we expect something to happen and it doesn't, we get discouraged. If our plans don't go according to schedule, we get depressed. Whenever something serious or important comes up, we immediately pray and want an answer right away. But sometimes we don't get a quick response to our prayers, so we complain. We doubt God. But God is always on time. Do you believe it? His time schedule is never delayed, nor is it ever ahead of time. God's movements are always perfectly on time. Think about Joseph's story which is told in Genesis. He was sold into slavery by his own brothers and falsely imprisoned, but years later he still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When do you think he started to pray about his situation? Look at Moses. It took him 80 years to be called by God as Israel's deliverer. He spent 40 years living in an Egyptian palace and forty long years living in the Midian desert. Consider the Red Sea. After the big flood, this was the first time God used a huge amount of water again to save His people. The Israelites witnessed God's miraculous activity in saving them and destroying the entire Egyptian army. Truly, the water rose high at the right time as surely as it fell down at just the right moment.

Most important is that the Messiah came to this earth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v. 4). God was right on time with the birth of Christ. How long it must have seemed to those who were eagerly waiting. How lengthy a time in history from the promise in the garden (Genesis 3:15) to Christ's actual birth (Matthew 2:1). Just think of the years of prophetic silence from Malachi to Matthew. Then it happened. Seemingly out of nowhere there was angelic activity. The census started, the inn was crowded, and Jesus was born. The angels sang and the wise men came searching. Amazing! It's going to be just the same with His 2nd coming. His entrance will be perfectly timed. The current scene and temptation of today's setting is that some

ON TIME

(Galatians 4:3-7)

*"...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

people doubt Christ's return. They don't think God will be on time. But God will be on time!

That there is an end to human history is known by both Christian and non-Christian alike. The Christian knows that God has a plan, a perfectly timed plan that includes the perfect setting and the perfect minute. The non-Christian sees things happening per chance. The truth does not lie in between. God does have a perfect ending plan that's recorded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point is that God's timing is never voided or cancelled. His activities always happen when they're supposed to, and this includes the happenings in our lives. Sometimes a car accident prevents us from coming to church, or a terrible situation occurs that we have to deal with. No matter the circumstance we can never give up. We must always have hope because God is watching over us. Like Joseph and Moses, His timing will be just right. So, let us not complain or grumble but have peace in knowing that God is in complete control. He is the master of your situation.

Let us remember tha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v. 4). Jesus was born exactly at the right time and place. His environment was terrible. He was

born in a manger because the inn was too crowded. His parents were really poor. There were not any experienced people around to give help during the birth. Indeed, Jesus was born into the lowest of situations. Our divine Lord was born from a woman and reared in conformity to the Mosaic Law. But His coming to this earth was perfectly timed. His humbleness was so great. The Bible tells us,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Phil. 2:5-7). Can you see His wonderful humbleness?

Jesus came to this earth to "save that which was lost" (Mt. 18:11). He was Himself acutely aware of the timeliness of His actions and His Father's plans. He wants to save all humans as is God's will. He will meet you wherever you are and in whatever situation you may find yourself. In that place God can change you. He wants to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v. 5). Not only that, but as a sinner becomes His son then the Holy Spirit enters his heart,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v. 6). Believers are no longer under the bondage of "the elemental things of the world" (v. 3). They can cry out to God their Father! They're no longer slaves but sons of God, heirs of God. What a wonderful blessing.

My dear friend, you are redeemed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Through the cross your sins are washed away. God changes you and makes you exactly like Him. He changes your life through His powerful activity. He makes you like Him. God will change you right on time. Please make the decision to accept Jesus, and He will be there for you right on time. You will go from a normal slave to His son. You will receive His eternal inheritance. If you're struggling and hurting, please don't give up. Trust in the Lord God. Give him all your heavy burdens, and He will give you peace, love, and joy.

During this time of Christmas, don't get wrapped up in the parties, gift giving, and all the excitement that the season brings, but humbly and sincerely meet the coming Jesus Christ. That's the seriousness of Christmas and of this season. As Paul preached the birth of Christ being right on time to the Galatia church, so I hope you now receive the blessings of that message. In your life, don't doubt or complain. Please be patient and you will receive the best place. When you meet Jesus, God will meet you right on time. Please trust in God to always be on time. 🙏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양치는 목자, '베들레헴' 여인숙, 지혜로운 사람들, 천사의 방동, 그리고 '이샤'의 선지자의 메시야에 대한 예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완전한 때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순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즉각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틀림없이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분께서 시기를 맞추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는 의미를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때와 다른 하나님의 때

의심할 필요 없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관해서 조바심을 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할 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만일 우리의 계획이 계획표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가 중요한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즉시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시간 계획은 절대로 늦추어지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하게 제 시간을 지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역옥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총리가 될 때까지는 여전히 많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기도를 시작한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40년을 예급의 궁전에서 살았고, 40년 이상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많은 물인 '홍해' 바다를 처음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후진 놀라운 이적과 애급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진실로 물이 갈라져 벽이 된 것은 정확한 때에 일어났으며, 분명히 정확한 순간에 그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때가 차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야가 '때가 차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갈 4:4).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해 두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긴 세월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멘' 동산에서 주생된 야곱으로부터(창 3:15)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탄생을 시작되자(마 2:1),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바네'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기다려지고 기다림하던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길로 보기에 천사의 활동이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여인숙은 사람들을 북적거리던 그 때, 예수께서 태어났습니다. 천사들은 찬양하였고, 동방의 박사들은 이와 같은 일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마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재림은 완전하고 알맞은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화와 율옥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개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정하신 시간에 그의

정하신 때에

(갈 4:3~7)

“...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



김성완 목사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상황의 주인

인류의 역사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非)그리스도인이든지, 양쪽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계획은 가장 적합한 때에 계획되는 것으로서, 정확한 확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非)그리스도인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자는 주권에 놓여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확한 결말의 계획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게 될 때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나타나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자동차 사고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긴급한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언제나 틀림없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언약에 따라 정한 때에 오신 예수

기억하십시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4절). 예수께서는 정확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주께서 태어나신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분은 여인숙이 만원(滿員)이었기 때문에 구

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의 부모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동안에 절제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가장 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께서는 여자에게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부활되게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확한 때였습니다. 그의 겸손은 매우 위대합니다. 성경은 그의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 2:5~7). 여러분은 그분의 놀라운 겸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아시는 예수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마 18:11, 한글 '개혁성경'에는 없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의 계획이 성취되는 정확한 시기와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만나주시 것이며, 예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든지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길 원하십니다(4절).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이 그의 자녀가 되면, 그 결과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6절). 그러므로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 초등 학부"의 굴레 아래 있지 않습니다(3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의 뜻을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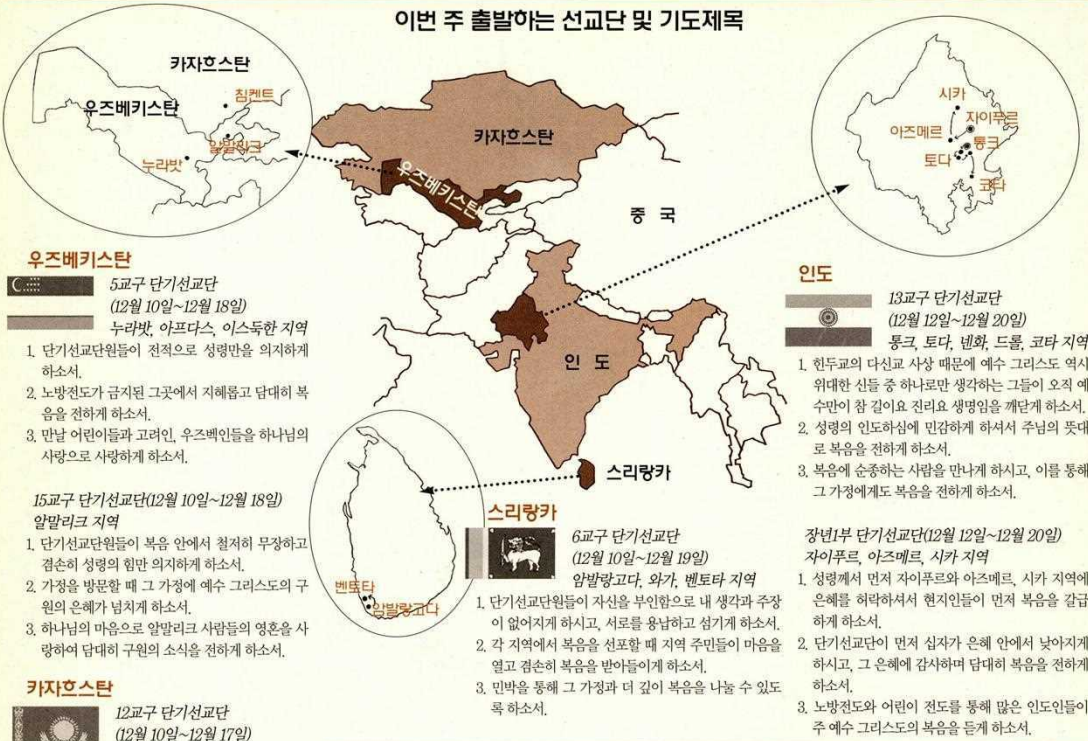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끗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며, 자신과 온전히 닮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충만한 능력으로 일하시므로써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자신과 닮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실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그 정한 때에 그곳에 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분노하고 상처를 입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의미 있는 믿음의 시간

크리스마스의 기간 동안에, 피부에 참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 연말연시의 모든 흥분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만나십시오. 이것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정한 때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탄생을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 메시지의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의심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자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

땅끝까지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현재 사역 중인 선교단

부서	사역지	날 짜
16교구	인도	12월 2일(월)~12월 10일(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7교구 단기선교단이
지난 주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 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배우는 선교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은 좋은 모델이 된다. 열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두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능력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들의 사역을 위한 준비와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

사역 준비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점

깊은 사명감을 가졌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많은 반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믿음을 때문에 자기 만종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한신과 충성을 다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복순하게 사기에 임하였다. 우리는 어떠한가?

잘 훈련되었다

예수님과 바울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약 30년 가량을 무명인으로 준비했다. 예수님은 목숨을 하며, 바울은 천막을 빌려 경험과 말씀과 영적인 통찰력과 민족의 역사와 심리와 문화를 통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호련과 준비에 너무 게으르지 않겠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정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총천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바울과 예수님은 성령이 강만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선교는 인간의 경험과 지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함께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에 임하는 자는 전폭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확신있게 복음을 제시야 한다. 이는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 지역장을 팀장으로 선교단을 구성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역에 순종하자.

진심자는 하나님의 회개를 알리는 도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종자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셨다. 인간은 죄와 해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나 종자자는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들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회복권을 얻는다. 그러므로 신교사는 그리스도교 사찰이며 복자이다. 그리스도교를 신장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을 신장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 배운 내게 내 뜻을 행하라'는 것이 나를 배워야 할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라 나를 보신 내 뜻의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배우고 읽어버리지는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설리는 이것이다(골 3:10, 12) (골 3:10-12)

이들은 세계적인 비전을 소유하였다.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회복해야 할 영역이다. 예수께서는 팔레스틴 지역에 머무셨으나 그의 임무는 우주적이었다. 예수는 이 세상의 구세주요 생명의 양식이고 구원의 빛이 되신다. 그분은 전 인류를 위해 오셨고 사역을 감당하셨다.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 우주를 향하여 회복과 화해의 사역을 했다. 이제 우리들 마음에는 전화를 켜야 한다.

이들은 기본 사역에 충실하였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기본적인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며 가르치고 세우는 일이다. 천국과 지국을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후 회심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기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며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선교에 임하여 지극 갈 영향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게 일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이들로 위험과 수고와 함정을 끼게이 이끄는도록 하였다. 우리 역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라는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시모하는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열정적으로 일할 때 마음을 모르고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에 임할 때 땅 끝까지 십자가가 속히 세워질 것이다.

종의 마음을 소유했다

수상님께도 재학들의 마음을 엿보임은 종의 도를 살피셨다. 이 일선 지사를 상하하는 것으로, 비현하고 겸손한 종의 위력을 의미한다. 내가 주로 도는 선생이 되어서 바를 깨끗이 하되도 바를 씻는 것이 줄이 줄이(29 131), 바라도 예수에 속한 바를 떠나고 동료들의 종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함이 (고전 9:19), 우리들도 스스로 종 된 자로서 사역에 임한다(수 1:1) 모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사를 경험할 것이다.

(수고와원회지도 이종철 목사)

사역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점

바울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화해였다

경험할 것이다.

(선교위원회지도 이종철 목사)

랄라랄라 아쉬웁게 학생회 끝

김길미니 (고동부)

학생회 봉사를 시작할 때에 순직하곤 난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했고, 진정으로 아닌 나의 '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였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나는 임원이니까, 더 신실한 척해야 하고 믿을 좋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괴로웠다.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교만했으나 학생회 서기는 결코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다. 출석통계, 의뢰록 기록, 소그룹집회 관리, 월례회, 난 이중에 하더라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었다. 매주 출석통계와 회의 때문에 학생회 지체통계와 또 선생님들과 참 많지도 부딪혔다. 수련회 때는 알아 누워서 방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소리만 듣다가 집으로 실패 오기도 했다. 언제나 실수 투성이었고, 일을 핑계로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부흥회 시간에는 학생회 봉사를 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수습하기에만 바빴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고 주님 원망만 했다.

하지만 주님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순교자들이 주셨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마다, 눈물이 빗줄처럼 흘러내릴 때마다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 밀마다 믿음이었던 나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랑을 주셨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셨다. 나의 고백은 주님의 사랑으로 무너졌고, 내가 무력하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주님은 날 끝까지 회개하게 만드셨고 주님 걸로 돌아오게 하셨다. 또 나를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의 통해 느끼게 해 주셨다. "너는 내게 임함추지 아니하였도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임함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지 아니하였도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눅 7:45,46). 봉사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난 그것을 몰랐다. 항상 나 살기에만 급급해서 너무 나쁘게 살아왔다. 이제 내 내가 어때졌 느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전하고 싶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말이다.



열방의 선지자

"내가 너를 복음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하나님께서는 에메미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에메미야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셨구나. 에메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열방의 선지자'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정한 자들만 구별하시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골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렘 1:4). 바울은 이러한 택하심과 구별이 특정한 개인에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천하만물은 천지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듯이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뚜렷한 계획과 목적 아래 태어났다는 사실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존재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목적 없이 낭비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모르고 삽니다. 그저 이 땅에서 호의 호식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첫째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이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아베소서 1장 6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

선도의 죽을 준비하기

영적인 보살핌

우리에게 죽음은 이별입니다. 죽음은 다른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중한 관계의 종말입니다. 분명, 죽음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아주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이 단지 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디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이 완전한 이별과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아가 젊은 성도들은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질병, 특히 말기의 불치병은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살아 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주님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몸이 좀 어떻습니까?"하고 묻는데, 이 질문은 환자나 그 가족들이 자기 바깥과 달리 정해진 이야기만 반복하게 만듭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죽어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관점이 육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육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몸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보다 "은혜 중한 하신니까?"라는 질문이 좋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며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묻는다면 죽어가는 자들은 건강한 자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 실망할 테지만 영적인 것을 묻는다면 한 형제 자매라는 동질감을 느껴 평안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은 세상의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하거나 창피해 합니다. "사는 게 좀 어때요?"하고 물었음에도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랑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불만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지 않지요. 성도가 부나 명예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불만하는 자의 의견을 해결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평안하십니까?"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평안하지 못한 것들과 평안한 것들을 말할 것이고 성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평안한 것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먼저주며 말을 건네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도움이 아니라 준 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오섭 기자)

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렘 1: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셨던 그 은혜,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돌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저의 아들,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내게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온전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백성도 사랑하셨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배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하는 것이 바로 에메미야에게 맡기셨던 '열방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바울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방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전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됨과 복음 전파는 뿔 수 없는 관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거룩한 선 제자로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하셨던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숙 목사)

구역장 영성훈련

칠 일 후에

15교구 김용덕 목사



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표현한다(창 6:5). 어떤 부분은 선하고 어떤 부분은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악하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일부만 악하고 선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라.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떠했을까? 성경은 노아를 '의인', '완전한 자' (창 6:9)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죄가 없는 자였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몸을 입은 자로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노아도 죄인이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 6:8)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입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었다. 노아가 심판을 예비하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갔고(마 24:38), 하나님께 오려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벧전 3:20). 방주를 다 만들고도 칠 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얼마나 비웃는가? 그들은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며, 금요일에 모여 즐기지 않고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을 비웃는다. 화창한 하늘이 계속되는데, 기대한 비가 올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비웃었던 것처럼, 이토록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들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가 아니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그들은 비웃는다. 이 비웃음이 싫어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변형시키지는 않았는가?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비웃음 속에서도 땅치절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땅치절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땅치를 숨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 않는가? 아니, 그들과 함께 복음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생각이 오히려 더 종교하고 있지는 않겠는가?

복음을 부끄러워 말라. 우리가 죄인이며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잊지 말라. 그 은혜를 비웃음으로 갚을 것인가? 주의 은혜와 경로를 권하며, 노아 시대의 그 칠일이 우리의 때에는 700년이 될 수도 70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고작해야 100년 아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권오성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서기수' 성도를 소개합니다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인연은 군대 시절, 담교 함들이 절호에 들 수 있는 방편으로 교회가 나가면서 시작했는데, 제대 후에는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가족 중 어머니께서 말년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어머니의 편을 들다 보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형님 부부가 교회에 나갔고 저도 어머니 생전엔 몇 번 회교를 따라 가보았습니다. 그 후 마음 속으로 늘 회교에 나가라는 어머니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왔다는 장로님의 전도로 회교에 다니기로 결심, 종원 회교에 나왔습니다. 이제 12주 정도 나왔는데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을 알았고,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담임교사의 적극적이고 정성스런 섬김이 정말 고맙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 양호실

1교구 임재경 씨(남28세) 교통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되어 화요일에 발가락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환우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이종업 성도(여48세) 자궁경부암 수술 후, 1차 항암치료로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올리기 위해 무균실에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수치가 올라가야 일반병실로 옮깁니다. 환우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12교구 이순희 집사(여50세)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최금옥 성도(여80세)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우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4편 -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위험에 관한 시가 아니라 도우심에 관한 시입니다. 위험천만한 제도는 이 시의 배경일 뿐,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위험할 때나 평안할 때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에 빠진 순간, 우리는 울무에 걸린 새끼가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지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구가 생긴 것입니다. 놀라게 구원입니다. "여호와께 찬송할지라도...울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문화 속에 살면서 혼자 경건한 제라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언이요, "우리를 지히 이여 주어 껍치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찬송할지라도" 라고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개인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주를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직접적인 곤경에도 관여하십니다. 한편,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4편은 우리 삶을 영감으로 만들기 위하여 들어오라 함과 더불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혼의 삶과 죽음의 경계, 즉 고난, 재해, 불행과 같은 일들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현상에서 만나는 매우 실제적인 삶의 요소들로서 두렵고도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위 전문가를 찾아가 위안을 구하고, 또 미술향관람 등 문화의 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찬양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통스런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곳에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잠깐의 갈등과 사소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역사 속의 고통이나 개인적으로 겪는 갈등으로 인한 불안과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우리 편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장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국면에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없는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향하여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들면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겪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빛이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한 결음씩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영혜원 기자)

♣ 다음 주일 찬송

230장 “저 뵈는 본향 집”

“더 나는 본향 집을 사모한다”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주제로 하는 이 찬송가는 1852년에 피에미 케리가 작사하였고, 아담슨 테너 성가 가수로도 유명한 필립 필립스가 작곡하였다.

- 1절: 저 뵈는 본향 집 날마다 가까이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후렴: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듯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 2절: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 3절: 내 생애 끝 날에 십자가 벗고서 내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네다
- 4절: 내 길의 원근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아름답고 온은하게 불리야 할 것이며, 후렴의 첫 소절과 둘째 소절은 가사가 반복되면서 울이 올라가는 부분이나 둘째 소절을 더 크게 불리야 “더 가깝다”는 가사가 잘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찬양위원회)

도구

에마다루 어느 교사

이젠 겨울이다 실을 정도로 추운 주일 아침, 집을 나서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가로수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순간 묘한 기분에 사로 잡혔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더욱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 입구 계단에 다다를 무렵 어떤 할머니가 이쪽저쪽을 살피며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디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예배 전에 있는 교회사회에 늦을 것 같기에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홀깃 쳐다보니 그 할머니가 놀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화를 잘못해서 늘 걱정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고 마치 수화를 잘 하는 사람인 양 어디로 가는지 여쭙어보고, 또 어떻게 가야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신 수화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뒤로 하고 다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수화로 할머니께 잘 알라주었다는 생각이 의기양양해져서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교회사회를 마치고 예배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시간 내내 통역해 주시는 수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수화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침에 의기양양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실망뿐이었습니다. 문득 그 할머니가 들고 있던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아무 짓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빈 잔을 주의 은혜로 채우셔서 친히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박 경배 (외선부교사)

영화 ‘미션’에서 주인공은 모두가 마다하는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남긴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하는 일에 모순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오스왈드 켈버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마가복음 7장 이방인연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녀를 위해 간구하던 여인에게 매를차게 대하셨습니다(막 7:27). 이 여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존심을 죽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보다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다시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깨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 7:28). 이 말을 들으시던 사랑의 예수님, 인자한 눈으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막 7:29).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딸을 고침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의 신성한 품성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가 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삼상 8장)

사무엘이 아이들이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습니다(삼상 8:1-2). 이런 결정은 사무엘의 실수였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버릇을 받든 약행을 일삼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은 후, 두 아들이 사무엘의 자리를 이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5절).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또 잊었습니다. 사무엘만 보았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인간의 나라가 더 매력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과 같은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제도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이미 모세에 의해 예언되었듯이(신 17:14-20).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왕을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주변 국가에 압제 당하며 어려움에 빠진 이유, 자신들의 범죄와 불신앙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신정정치 불신하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6절). 자신의 판단에 인간적인 감정이 들기 염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요, 이것은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왕을 세워 달라고 억지를 쓰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잘못된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서,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온갖 패해를 깊이 체험케 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라보고 억지를 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므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왕의 제도로 말미암아 오게 될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10-18절). 왕을 택한 후에 그 왕의 압제로 인하여 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심에 따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같은 왕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압제가 쿠가 막고 눈이 먼 백성들은 더 강박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웁니다. “...말 듣기를 거절하여...”(19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20절). 결국 백성들은 이방들과 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더 많아가는 것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 있는 이의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순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권영희 기자)

진리의 샘

로마서(Rom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습니다. 즉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본 후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려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행 19:21).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고, ‘고린도’ 지역에도 잘 정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행 22:27). 바울 ‘길기기가 다소’가 고향이었지만(행 21:39, 22:3), 그에게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말한 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20). 그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끼여 모든 아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치나 귀중함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주를 캐는 마음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읽을 때는 커다란 그림을 머리 속에 두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기도 한데, 되짚어해서 읽다 보면, 하나의 기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 기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1:1)을 ‘하나님의 아들’(1:4), ‘하나님의 능력’(1:16), ‘하나님의 의’(1:17)로 적용했고, ‘하나님의 진노’(1:18)는 ‘하나님의 영광’(1:23), ‘하나님의 전리’(1:25)를 해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2:3,5).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인 ‘하나님의 한’(3:21)을 ‘하나님의 은혜’(3:24), ‘하나님의 약속’(4:20), ‘하나님의 은사’(6:23)로 표현하여 이 세상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화 목사(출판국 지도)

교회 소식

알림

1. 제6회 학습·세례식 안내
2002년 12월 학습·세례식
이 29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당당교역자에게 15
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 1. 장로 할로새벽기도회
일시 : 9월(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배다눔
- 2. 안수집사회 화요일기도회
일시 : 10월(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배다눔
- 3. 전도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는 10월 10일
장소 : 전도위원회실
- 4. 기쁨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는 10월 15일
장소 : 기쁨위원회실
- 5. 권사 3·4월 월례회
일시 : 11월(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장소 : 감리교회

(문당 지하층)

- 7. 한나 6월(화) 총회
일시 : 오는 6월 24일
장소 : 교육관 401호
- 8. 한나 7월(수) 총회
일시 : 12월(수) 11:00
장소 : 관악교회
- 9. 한나 10월(화) 총회
일시 : 오는 10월 24일
장소 : 교육관 401호
- 10. 한나 11월(화) 총회
일시 : 오는 11월 27일
장소 : 교육관 401호
- 11. 한나 13월(화) 총회
일시 : 오는 12월 17일
장소 : 교육관 401호
- 12. 한나 14월(화) 총회
일시 : 오는 12월 24일
장소 : 교육관 401호
- 13. 한나 17월(화) 총회
일시 : 12월(화) 11:00
장소 : 관악교회
- 14. 에스더 22월(화) 총회
일시 : 오는 12월 22일
장소 : 교육관 401호
- 15. 에스더 5월(화) 총회
일시 : 오는 5월 24일
장소 : 교육관 401호
- 16. 에스더 9월(화) 총회
일시 : 오는 9월 24일
장소 : 교육관 401호

장소 : 배다눔(244)

- 23. 마리아 10월(화) 월례회
일시 : 10월(화) 10:30
장소 : 관악교회
- 24. 마리아 13월(화) 총회
일시 : 오는 3부 예배 후
장소 : 교육관 401호

보내

- 1. 최은나 목사
박영배 장로의 딸로, 7월 29일
2부 / 11월 27일 밤세, 11월 29
일 장례
- 2. 김명숙 성도
김명숙 장사의 부친, 5월 30일
19일 / 2부 밤세, 4일 장례

결론

- 1. 이명숙 (관악교회) 타고난 성도의
아들, 1992년 4월 29일 장례식
간세, 박영배 장로의 딸, 1992년
12월(화) 12:30, 장례식

주변연

- 1. 이명숙 안수집사 김명숙 장사
장기도 파주시 목동로 40호

헌사총회

일시 : 15월(다음주) 15:00

장로회

장소 : 감리교회

시랑부 자랑봉사 모임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장소 : 배다눔(244)

12월 행사 일정표

- 12월 11(수)
12월 15(수)
12월 20(금)
12월 22(토)
12월 24(토)
12월 25(수)
12월 29(토)
01. 01(수)

임시당회 (예결산·2003년도 일괄 임명)
은퇴·근속자 표창 / 특별의지회(예결산·저녁찬양예배 후)
일괄 발표(주간찬양-임명장을 대신함)
교구총회(메시) 찬양
교구총회
성탄축회(교구위원회)-감리교회
성탄축회(예배) 오전 9, 11시/수 저녁 2부 예배는 없음
제6회 학습대례식 / 관동의회(예결산·저녁찬양예배 후)
신년감사예배(오전 9, 11시)-수요일 저녁 2부 예배는 없음

이번호 재부기도회 담당

구분	역(월)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주일)
설교자	김익환	정진호	김종덕	고광환	이수근	김동하	이성숙
기도자	이종실	박종현	정창길	이성숙	이성숙	강덕택	김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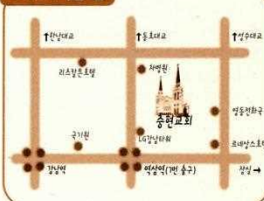
대 24(목) 2003-403, 2003-9146-1992

전남연맹

- 1. 김성득 장사, 임근에 교사

2003년 12월 8일

교회 소식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예배) / 오후 2:00(예배)	본당
V	오전 3:00	본당
VI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오전 7:00	본당
금요일예배	오전 7:00	본당
세례기도회	오전 7:00	본당

기도원 안내

월	시간	찬양
월요일	오전 11:00	찬양
화요일	오전 10:30	찬양
수요일	오전 10:30	찬양
목요일	오전 10:30	찬양
금요일	오전 10:30	찬양
토요일	오전 10:30	찬양
일요일	오전 10:30	찬양

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건국 이병하
윤인현 최태원 엄필선 강요동 오정현
이 훈 남남수 정종성 김경진 문용구
조인재 김승구 최귀구 김진태 이창호
차신복 박영진 김광남 이종식 이희영
이병욱 안종욱 임두원 이종실 최기홍
이갑재 진종훈 진종현 이종원 김단용
황원일 한승수 김광수 정종식 김광기
원승철 이형수 안동현 황인태 김구형
최유덕 이재민 박태양 이태식 정태두
박종규 권준호 조준환 배순식 김광현
이철호 박석진 최귀구 노영환 박길진
정정길 신상수 강종현 고재순 김광현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록 이종현 김명훈
이종대 김교성 이수근 이우진 안학덕
방윤일 나영원 정진호 김용덕 이종욱
고광환 김광호 위진광 김익환 김경수
장 준 일현덕 이희식 최충철 하종철
■ 찬양감독 김광기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숙자 김갑자 안태순 김경원
조유자 강덕택 김경진 장예구 최문실
전은희 김경순 김경자 이수경
■ 단신교사
■ 단신교사
■ 단신교사

2003년도 전반기 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 ① 본 교의 등록교인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 ③ 공매매와 교회학교 부설의 집회 및 참석하여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서류접수 : 2002년 12월 22일(주일)부터 2003년 1월 12일(주일)까지 3주간

3. 신청장소 : 교육과

4. 문의 : 교육과

직원모집

총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모집부서 : 운전기(사) 총현교회-1명 / 식당직원(기동원·숙식도 가능)-3명 / 신약인사(총현교회)
- 2. 자격 : 세무관리
- 3. 제출 서류 :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 4. 서류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총현교회 사무과 ☎ 552-8200

정신적 총현교회

총현동신사예배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바뀐 내용)

- 1) 매장방법
현토장(주·수)으로 하여 기존의 봉분으로 되어있는 묘지도 유가족의 동의하에 평토장으로 바뀐다.
- 2) 매장의 하라
① 전 가족이 등록한 경우 / 고인이 세례 받은 후 1년이 지났고 총현교회에 등록하여 출생한지 1년 이상 된 자.
② 고인만 등록한 경우 / 고인이 세례받은 후 2년이 지났고 총현교회에 등록하여 출생한지 2년 이상 된 자.
- 3) 동산 매장을 하라 할 수 있는 경우
① 이미 매장된 묘소에 본 교회 고인이 아니거나 또는 자객 미달인 배우자가 별세하여 합장을 원하는 자.
② 매장지 개서 제출을 하지 않은 자.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799	한종훈	1	청년2부	808	이정진	11	청년2부		
800	이미진	3	청년2부	809	오용훈	19	청년1부		
801	김현진	19	청년1부	810	김정민	12	청년2부		
802	이수연	6	청년1부	811	이근학	15	청년2부	이근덕(1)	
803	박정현	19	청년2부	812	권영진	15	청년1부	이근덕(1)	
804	서정호	8	청년2부	813	김재현	15	청년2부	이근덕(1)	
805	최지연	8	청년2부	814	김종욱	15	청년2부	김광진(1)	
806	박영태	9	청년2부	815	김원진	19	대학부	장갑구(1)	
807	김종욱	11	청년2부	816	이정민	19	대학부	황은정(1)	

★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